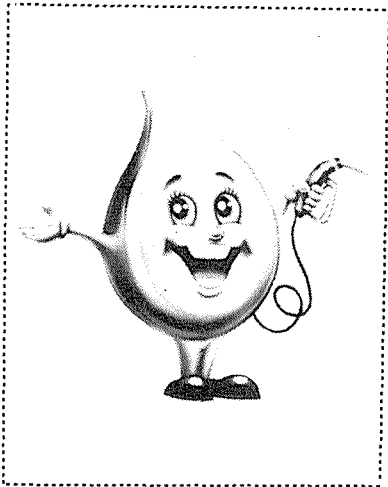


저유가시대 선도하는 정유업계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한때 기름값은 으레 오르는 것으로만 알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는 70년대의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체념 비슷하게 받아들여졌던 악몽의 유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으레 오르는 것으로만 알았던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油價는 지난 6월 8일 다시 5.8%(소비자가격 기준)가 내렸다. 이같은 油價인하는 지난 3월 11일의 평균 10.6% 인하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도 두번째이며, 또 지난 86년 2월 이후 약 2년사이에 모두 5차례에 걸쳐 37.2%(소비자가격 기준)가 내린 셈이다.

일반물가는 자주 뛰는데 기름값이 내리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기름값이 계속 내려 산업도 가계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油價인하에 따른 부문별 부담경감효과는 연간 2천3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총원가중 석유제품의 직접투입비중은 1~25%이기 때문에 이번 B-C油 10.5% 인하에 따른 제조업의 원가절감효과(간접파급효과 제외)는 0.1~2.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제품의 직접투입비중이 25%나 되는 기초화학은 원가절감효과가 2.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石油의 용도는 연료용과 원료용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중 연료비에 미치는 효과만을 고려한 생산비 경감효과는 오른쪽 옆의 표와 같다.

이번 油價인하로 우리나라의 석유류가격은 주요경쟁국인 日本이나 台湾에 비해 더욱 싸졌다. 경유 하나만 보더라도 台湾에 비해 32%, 日本 보다는 56%나 낮다. 이는 환율하락과 임금인상등으로 악화된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보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국내油價의 低價유지현상은 환율하락외에 국내정유사가 정부의 석유류 低價및 안정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인식하고, 소요원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도입하는등 자구노력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유가관리제도는 정부가 공장도·대리점·주유소로 구분된 유통단계별 최고 판매가격을 직접 결정, 고시하는 방식으로서 油價운용의 기초를 물가안정, 정유산업의 최소한 이윤허용, 성장산업 지원 및 국민생활 안정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稅前공장도가격은 精油5社の 평균생산비용, 즉 원유관

국내 油價인하 추이

	1986. 2. 20	1986. 3. 30	1987. 10. 16	1988. 3. 11	1988. 6. 8	計
세전가격조정율(%)	▲ 12.93	▲ 10.70	▲ 11.01	▲ 11.74	▲ 6.39	▲ 41.2
소비자가가격조정율(%)	▲ 11.2	▲ 10.0	▲ 10.2	▲ 10.6	▲ 5.8	▲ 37.2

부문별 油價인하 혜택

	산 업	수 송	가정·산업	공공·기타	전 력	計
억 원*	918	839	313	153	119	2,342

〈資料〉 동력자원부 *年間惠澤 기준

제조업 원가부담 경감효과

	섬 유	제 지	식 료 품	기초화학	합성수지	비철금속	철 강	제조업평균
직접투입비중(%)	1.5	2.9	1.3	25.0	2.5	2.9	2.2	2.47
원 가 절 감(%)	0.16	0.30	0.14	2.63	0.26	0.30	0.23	0.26

〈資料〉 동력자원부

B-C油 10.5% 인하시 비용경감효과

(단위: 억원, %)

	생 산 비	연 료 비	생산비경감율
제 조 업	502,963	13,457	0.28
자 동 차	21,955	166	0.08
전기·전자	52,484	388	0.08
기 계	17,937	153	0.09
정 밀 기 계	3,711	22	0.06
조 선	20,243	33	0.02
화 학	136,343	3,192	0.25
철 강	39,877	1,192	0.31
비 철 금 속	8,970	295	0.35
조 립 금 속	11,608	227	0.20
섬 유	47,262	2,024	0.45
의 복	16,054	171	0.11
복 재	8,624	93	0.11
제 지	13,509	767	0.60
음 식 료	46,231	207	0.27

註 1) 연료비=전력비 제외, 원료유 제외

2) 생산비 경감율=(연료비/생산비)×0.105×100

〈資料〉 대우경제연구소, 「유가 및 전력요금인하의 산업별 영향 분석」 1987. 10

런비용, 정제비등 평균제조원가에 정유사의 최대허용이익을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稅後 10%로 반영하여 정부가 결정하는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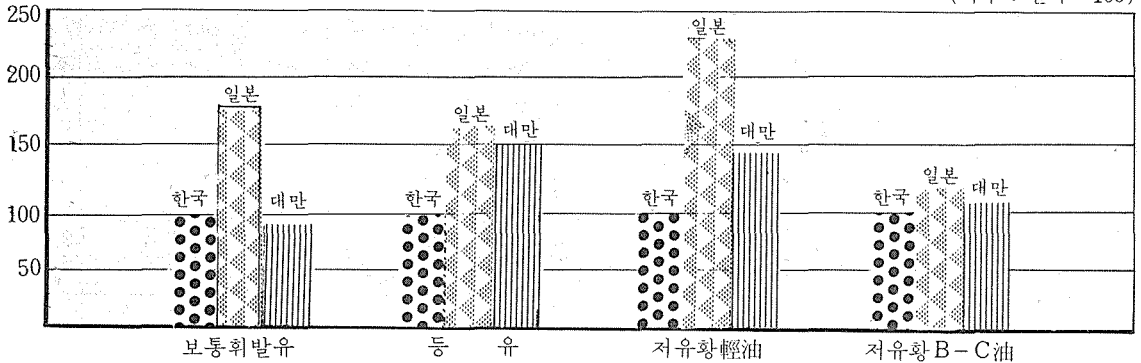
한편 소비자가가격은 稅前공장도가격에 제품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및 유통마진이 가산되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석유류가격의 원가구성은 원유비, 도입금융비및 부대비등 국제시황에 연계되어 변동되는 요인과 정제비, 정부부담비용(제세·석유사업기금), 유통마진등 국내적인 변동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두가지 요소의 적절한 조합을 통하여 국내油價를 관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정유업계는 원가경쟁은 물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국내 석유류가격의 低價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韓國, 日本, 台湾의 85년말 이후 원유가및 환율변동에 따른 油價인하요인의 배분방안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총인하요인중 약 70%를 국내油價인하에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30%는 석유사업기금으로 유보하여 국제원유가격 상승시에 대비한 국내油價 완충재원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경제사회구조 조정사업등에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台湾은 46%를 油

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비교

(지수: 한국=100)



〈資料〉 동력자원부

石油 소비자가격 구성 내역

(단위: \$/B)

		韓 國	日 本	台 灣
原 油	原油도입비용	17.1	17.9	16.9
	공과금(관세등)	7.5	1.6	12.2
	정유사비용	2.6	16.1	12.3
	세전공장도	27.2	35.6	41.4
		(100)	(131)	(152)
석 유 제 품	공과금(특소세등)	6.2	15.6	5.9
	유통마진	3.5	32.6	-
	소비자가격	36.9	83.8	47.3
	(100)	(227)	(128)	
정유사 경영형태 油價관리 체제		민간기업 정부통제가격	민간기업 자유시장가격	국영기업(CPC) 정부통제가격

〈資料〉 동력자원부, ()는 지수비교

油價의 정부관련 비용 비교

	韓 國	日 本	台 灣
原 油	관세: 1.6\$/B(정율 10%) 방위세: 0.4\$/B(정율 2.5%) 기금: 5.5\$/B	관세: 0.8\$/B(정액 640¥/kl) 석유세: 0.8\$/B {(CIF×관세)×4.7%}	관세: 0.8\$/B(정율 5%) 항만세: 0.1\$/B (정율 1%)
	7.5\$/B	1.6\$/B	0.9\$/B
石油製品	특소세: 3.1\$/B 부가세: 3.1\$/B	소비세: 15.6\$/B -	화물세: 3.7\$/B 신영업세: 2.2\$/B
	6.2\$/B	15.6\$/B	5.9\$/B
비 고	정부가 기금으로 흡수후 관련 산업지원 및 유가완충 재원으로 활용	정유사가 환차익을 자체흡수하여 환차손 발생시 등에 대비	中國석유공사(CPC)가 약 15~16\$/B 상당액을 유보후 정부 재정충당 및 유가완충 재원으로 활용

〈資料〉 동력자원부

價인하에 반영하고 54%를 中國석유공사(CPC)의 이익 잉여금으로 유보한 바 있다. 日本은 57%를 油價인하에 반영하였으며, 43%는 정유사 및 유통부문의 마진 인상에 사용한 바 있다.

즉 日本과 台湾은 총인하요인중 50~60%를 油價인하에 반영한 후 나머지는 정유업계가 향유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잔여분마저 정부정책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정유사의 몫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앞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석유류가격 중에는 관세, 석유사업기금, 특별소비세 등 각종 정부부담 비용이 약 31%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부부담 비용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정부부담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각정유사가 국제석유시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경쟁국인 日本이나 台湾 보다 저가로 原油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유사의 낮은 이익수준을 들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정유사의 허용이익을 규제하여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10% 수준으로 억제함으로써 국내油價의 低價유지

韓國·日本의 원유도입가격 비교 (단위: \$/B)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韓國	35.60	34.08	29.91	29.10	27.75	15.12	17.76
日本	37.20	34.66	30.77	29.36	28.07	16.40	17.78
차이	1.69	0.58	0.86	0.26	0.32	1.28	0.02

〈資料〉 대한석유협회

국내산업의 자기자본이익율 비교 (단위: %)

	精油業	화 학	자동차	家 電	제조업 평 균
1983	0.5	10.6	23.3	21.4	9.6
1984	4.8	6.6	14.5	12.1	6.8
1985	11.2	6.3	12.7	10.0	5.8
1986	9.4	9.2	10.6	12.5	10.9
1987	9.8	8.9	12.3	10.1	10.9
평 균	7.1	8.3	14.7	13.2	8.8

*상장기업 기준
〈資料〉 대한석유협회

에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이익수준은 국내 타산업 및 외국의 주요 정유사의 이익율 수준과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계, 정유사의 공장운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과 대리점·주유소 유통마진의 최소화 유지를 들 수 있다.

특히 국내 석유류의 유통마진은 정유의 엄격한 규제로 국내 他도소매업과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사회발유의 유통, 정량미달거래 등의 유통상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매출액 이익율 국제비교 (단위: %)

	韓 國	日 本	美 國	英 國	네덜란드
1983	0.02	0.8	5.3	3.2	5.2
1984	0.2	0.5	5.7	2.9	5.7
1985	0.6	0.8	5.2	1.6	4.8
1986	0.8	1.1	7.0	1.8	5.7
'83~'86 평균	0.4	0.8	5.8	2.4	5.4

〈資料〉 대한석유협회

석유제품 유통마진(대리점/주유소)의 국제비교 (단위: ¢/ℓ)

	韓 國	벨기에	프랑스	西 獨	日 本
유통마진	2.2	6.0	5.6	4.5	15.3

註: 휘발유·경유의 물량 가중평균임.

국내 타제품과의 유통마진을 비교 (단위: %)

	석유제품	쇠고기	T V	소 주	일 반미
유통마진율	9.5	38.1	27.5	16.5	1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석유류제품가격은 정부의 低油價정책 추진 및 이에 대한 정유업계의 노력으로 주변의 어느 경쟁국 보다 저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에너지이다. 향후 도래할지도 모르는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기름값이 쌀때일수록 더욱 아껴 쓰는 습기가 필요하다 하겠다. ☐